



Autumn | 2023



클럽디 금강 WEST 1번홀



클럽디(CLUBD) 2024년 연간 단체 회원 모집...전국 4개 골프장 동시 3팀 이상 예약 시 1인 그린피 할인·조식 무료 등 다양한 혜택 제공

클럽디 보은 WEST 3번홀

친환경 기업이자 국내 밸류업(Value-UP) 전문 플랫폼 회사인 주식회사 이도(YIDO)가 운영하는 레저 브랜드 클럽디가 골퍼들을 위해 2024년 연단체 모집을 시행한다.

충청북도 보은에 있는 클럽디 보은과 클럽디 속리산은 개별 및 2개의 골프장을 동시에 이용할 수 있는 통합 연단체를 모집한다. 클럽디 보은은 3팀이상(1팀 4인기준), 3월~11월까지 8회 이상(7월~8월 1회 필수 이용) 연단체를 신청할 경우 그린피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클럽디 속리산도 3팀 이상(1팀 4인기준), 3월~11월까지 8회 이상(7월~8월 1회 필수 이용) 신청할 경우 최대 그린피 50%를 할인해 준다. 통합 연단체의 경우 보은과 속리산을 격월로 교차하여 신청할 수 있다. 전라북도 익산에 있는 클럽디 금강은 3팀이상(1팀 4인기준), 3월~11월까지 7회 이상(7월~8월 1회 필수 이용) 연단체를 신청할 경우 그린피 할인 및 조식을 제공하는 혜택을 제공한다.

경상북도 거창에 위치한 클럽디 거창은 2팀이상 연5회이상(7월~8월 1회 필수 이용) 연단체를 신청할 경우 그린피 무료 및 음료 무료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밖에 연단체 회장 및 총무 등 운영진에게는 그린피 최대 50% 할인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자세한 사항은 클럽디 홈페이지(www.clubd.com)와 클럽디 보은·속리산·금강·거창 등 4개 각 골프장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서 다운로드 후 이메일, 팩스, 현장제출 등을 통하여 접수하면 된다. 글 | CLUBD(클럽디) MAGAZINE



CLUBD

2024년 클럽디 연단체 모집

보은·속리산·금강·거창

접수방법
인터넷 : CLUBD 각 지점 홈페이지-연단체-연단체 신청 클릭 후 접수
서 면 : CLUBD 각 지점 홈페이지-공지사항-연단체 신청서 다운로드 후 이메일 또는 팩스 접수

제6회 서원·클럽디 레이디스 골프 챔피언십 성료...골프장 주최 총상금 최대 '6억 원'

오는 11월 21일~내년 1월2일까지 매주 화요일 JTBC 골프에서 방송

국내 골프장 주최 여성 대회로는 사상 최대인 총상금 6억 원 규모의 제6회 서원·클럽디 레이디스 골프 챔피언십이 새로운 대회 방식으로 지난 10월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20여 년 동안 대한민국 10대 코스로 선정된 서원밸리컨트리클럽의 명품 퍼블릭 '서원힐스'와 국내 유일의 밸류업(Value-Up) 전문 플랫폼 기업인 (주)이도(YIDO)가 운영하는 국내 대표 골프 클럽 브랜드 '클럽디(CLUBD)'는 '제6회 서원·클럽디 레이디스 골프 챔피언십'을 공동으로 개최했다. 이번 '제6회 서원·클럽디 레이디스 골프 챔피언십'은 골프를 사랑하고, 당당한 삶을 원하는 여성들의 꿈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금번 대회는 스트로크 방식으로 지난 7월부터 서원힐스 240명, 클럽디 보은(80명) 및 속리산(80명), 금강(80명), 거창(80명) 4개 골프장 총 320명이 참가한 지역 예선 및 결선(서원 100명, 클럽디 120명)을 진행했으며, 서원 및 클럽디 상위 각각 4명 등 총 8명의 왕중왕전 진출자를 선발했다. 프로 8명이 참가한 왕중왕전은 프로와 아마추어가 팀을 이룬 2:2 변형 매치플레이를 통해 최종 우승자를 가렸다. 금번 대회에선 민디 김, 강수연, 김나리, 이선아, 이은정, 임성아, 황아름, 홍진주 프로 등 그동안 국내외 여자 골프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이뤘던 LGPA 레전드 및 KLPGA 프로들이 참가했다. '제6회 서원·클럽디 레이디스 골프 챔피언십'의 시상 규모는 국내 골프장 주최 여성 대회로는 사상 최대인 6억 원에 달했다. 통합 왕중왕전 최종우승팀에는 6,000만 원 상당의 상금과 시상품이 주어졌다. 대회는 오는 11월21일 화요일 저녁 10시 30분 첫 방송을 시작으로, 내년 1월 2일까지 같은 시간 총 7편으로 JTBC골프에서 방송된다. 글 | CLUBD(클럽디) MAGAZINE





그린 앞·뒤 단차의 반전이 있는 클럽디 보은 ‘WEST 1번’

무난한 PAR 4홀로 티잉 구역에 올라서면 그린에 보이지 않는 블라인드 홀로 답답함을 느낄 수 있지만, 페어웨이 중앙을 공략하면 어려움 없이 그린에 보이는 2nd샷 위치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앞뒤의 단차가 있는 그린이므로 세컨드 샷을 할 때 핀 위치를 확인 후 그린 주변의 모래 벙커와 그래스 벙커를 피해 신중히 공략해야 하는 홀입니다.



코스제원 : PAR 4, 322m(화이트 티), 287m(레드 티)
코스기록 : 이글 39회 / 버디 6,420회 / 파 173,837회 / 보기 118,360회 / 더블보기 61,918회 / 트리플보기 26871회

글 | 허현숙 CLUBD(클럽디) 보은 경기 팀장



해저드를 극복하는 도전적인 클럽디 속리산 ‘EAST 2번’

티잉 구역 앞에 있는 해저드가 위협적으로 느껴질 수 있는 홀이지만 티샷만 해저드를 무난히 넘기면 짧은 거리가 남게 되어 세컨드 온을 쉽게 할 수 있는 홀입니다.
그린 주변의 좌우가 좁고, 앞쪽에서 뒤쪽으로 내리막이고 우측이 높고 좌측이 낮은 경사도로 구성되어 있어 어프로치와 퍼팅을 핀보다 앞쪽과 우측으로 신중하게 공략해야 좋은 스코어를 기대할 수 있는 홀입니다.



코스제원 : PAR 4, 335m(화이트 티), 297m(레드 티)
코스기록 : 이글 265회 / 버디 12,189회 / 파 112,774회 / 보기 145,581회 / 더블보기 87,858회 / 트리플보기 29,800회

글 | 남승미 CLUBD(클럽디) 속리산 경기 팀장



가을을 알리는 클럽디 금강 클럽디 금강 ‘WEST 1번’

클럽디 금강의 WEST 1번 홀은 티잉 구역에서 내리막 홀로 페어웨이의 단풍이 물들어 가는 소리가 한눈에 다 보이는 홀입니다. 우측으로 고개를 돌리면 해저드 안에 억새를 보면 가을의 정취를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첫 홀 티샷은 좌우에 자리 잡은 벙커를 피해 페어웨이를 공략하면 좋습니다. 세컨드 샷은 그린 선상까지 들어와 있는 해저드를 피해 핀 위치에 따라 신중하고 정교한 공략을 해야 좋은 스코어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코스제원 : PAR 4, 401m(화이트 티), 366m(레드 티)
코스기록 : 이글 21회 / 버디 4,866회 / 파 145,003회 / 보기 109,304회 / 더블보기 69,440회 / 트리플보기 24,754회

글 | 최은숙 CLUBD(클럽디) 금강 경기 팀장



동전의 양면성처럼 예측이 어려운 클럽디 거창 ‘WEST 3번’

티잉 구역에서 보는 홀의 모습과 그린에서 보는 홀의 모습이 전혀 다른 홀인 듯 느껴지는 WEST 코스 중 최고의 난도로 꼽히는 350m PAR 4홀입니다.
우측 벙커까지 거리는 130m로 좌측 카드로 옆 언덕 방향으로 공략하시면 좋은 스코어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티샷부터 세컨샷까지 정교한 전략을 요구하는 홀이므로 도전적이고 아름다운 환경에서 골프를 즐기고 싶은 분들에게 최상의 선택이 될 것입니다.



코스제원: PAR 5, 455m(화이트 티), 395m(레드 티)
코스기록 : 이글 12회 / 버디 1,479회 / 파 27,216회 / 보기 61,272회 / 더블보기 53,521회 / 트리플보기 22,206회

글 | 박희정 CLUBD(클럽디) 거창 경기 팀장

아름다운 자연과 코스의 아늑함을 느끼며 힐링하는 ‘클럽디 보은’ 레스토랑



김윤호 셰프

충청북도 보은군에 있는 클럽디 보은은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함께 아늑한 코스로 유명한 곳이다. 그래서 특히 여성 골퍼에게 인기가 많은 골프장으로 꼽힌다. 이곳 클럽디 보은 2층에 있는 레스토랑은 국내 대표 단체급식 기업인 삼성웰스토리가 운영하고 있다. 특히 음식의 맛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은 바로 ‘김윤호’ 셰프이다.

‘김윤호 셰프’는 조리 경력 20년의 베테랑이다. 지난 2017년 삼성웰스토리에서 내부적으로 열린 조리대회에서 3위에 입상할 정도로 실력을 인정받고 있다. 날이 추워지는 가을 겨울철 골퍼들을 위해 김 셰프가 추천하는 메뉴는 돌솥비빔밥과 나주곰탕, 우거지 해장국이다.

돌솥비빔밥은 온도 차가 심한 가을 뜨거운 돌솥에 밥과 나물 재육을 넣어 온기를 온전히 보존하며 마지막 바닥에 누른 누룽지를 먹는 돌솥비빔밥의 특색을 살린 음식이다.

나주곰탕은 양지를 이용하여 고기의 맛과 향을 느낄 수 있는 맛이 일품이며 몸을 보양하는 음식이다. 우거지 해장국은 사골과 양지, 우거지 넣고 얼큰하게 끓인 해장국이며 우거지의 비타민D 식이섬유 칼슘이 풍부하여 골다공증 예방과 숙취 해소에 도움이 되며 클럽디 보은을 찾는 골퍼들에게 인기가 있다.

클럽디 보은은 아울러 겨울철은 관절 부위 연골과 힘줄을 이용하여 쫄깃하게 씹는 맛이 일품이며 충청도 특산품을 이용한 보은 대추를 추가하여 몸을 보양하는 음식인 도가니탕도 새롭게 선보일 예정이다.

글 | CLUBD(클럽디) MAGAZINE



INFLUENCER INTERVIEW

‘골프장에 가면 항상 그녀가 있다.’ 김미영 아나운서, “골프는 또 다른 저의 소통 창구예요.”

골프 대회의 마지막은 우승자 시상이다.

그간의 선수들의 노력을 보상 받는 특별한 시간. 챔피언을 더욱 빛나게 해주는 아나운서가 있다. 바로 김미영 아나운서다. 10년간 LPGA, klpga, kpga 등 정규 투어 프로 대회 피날레만 100회 이상을 장식한 김 아나운서를 클럽디 매거진이 만났다.

Q. CLUBD : 안녕하세요! 김미영 아나운서! 클럽디 매거진 독자들에게 인사 부탁드립니다.
A. 김미영 아나운서 (이하 김 아나운서) : 지난 2010년부터 골프 아나운서로 시작해서 올해 14년 차가 되었네요. 골프 대회 현장을 누구보다 행복하게 많이 다니고 있는 김미영입니다.

Q. CLUBD : 요즘 전국 방방곡곡 골프장을 다니느라 바쁘시다면요?
A. 김 아나운서 : , 최근 약 2주 동안 춘천, 여주를 거쳐서 제주도, 대구, 구미를 다녀왔고요. 이번주는 베트남에 골프 레슨 프로그램 mc로 촬영을 다녀올 예정입니다. 반 골프인의 삶을 살고 있어요. 라운드를 하는 것은 아니고, 시상식 mc, 중계 캐스터로서 역할하고 있는데요. 올해 특히, 코로나19 이후로 많은 분들이 골프 대회를 기다렸구나 느껴요. 프로대회, 프로암, 아마추어 대회들이 늘어나고, 저를 찾는 곳도 많아졌어요. 덕분에 누구보다 골프장과 대회현장을 많이 간 아나운서 중 한명이 아닐까 싶은데요.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Q. CLUBD : 정규 투어 시상식 때 자주 보였던 것 같은데, 10년이 넘으셨으면 정말 많이 다나셨겠어요.
A. 김 아나운서 : 한 해에 약 투어프로 대회에 10회 가까이 갔던 것 같아요. 모두 세보지는 않았지만, 10년이 넘었으니 100회 이상 가지 않았을까요. 프로암 대회와 아마추어 골프 대회까지 하면, 상당하죠. 하지만, 한번도 같은 느낌의 시상은 없었습니다. 많이 현장을 간 것보다 중요한 건 많이 공감하고, 공부하고, 준비하는 일인 것 같아요. 멘트의 깊이가 달라지니까요.

Q. CLUBD : 골프와 관련된 일 외에 다른 분야도 진행하시죠? 스피치 강의도 많이 하시잖아요?
A. 김 아나운서 : 네, 스피치 강의를 한 것도 10년이 넘었네요. 프레젠테이션협회 이사로도 활동하고 있는데, 특강 요청이 많이와요. 지난주에는 삼성전자 PT 특강, 효성 메르세데스 벤츠 딜러분들 대상으로 커뮤니케이션 강연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자제품, 자동차 신제품 런칭 때 mc를 자주 보는 편이고요. 주주총회 아나운서로도 특별한 이력이 있어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제일기획 주요 대기업의 주주 총회를 10년 이상 맡아 왔어요.

Q. CLUBD : KPGA 프로분들 대상으로 스피치 강의를 맡고 계신다고요?
A. 김 아나운서 : 네, 매년 KPGA에서 분기별로 강의하고 있어요. kpga 투어 프로 입문 교육 과정 중 미디어 인터뷰 강의, kpga 프로 경력개발을 위한 클래스A 과정에서 미디어 스피치를 맡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스피치를 가르쳐 드리는 것이 아니라 골프 현장에서 인터뷰를 하며 제가 직접 경험한 점, 프로님들을 가까이에서 보면서 느낀점을 토대로 편 프로그램이에요.

Q. CLUBD : 골프 프로분들을 대상으로 스피치를 강의를 하게 된 계기가 있나요?
A. 김 아나운서 : 네, 제가 아무래도 프로님들 만날 기회가 많은데, 미디어 환경에서는 좋은 이야기들을 밖으로 잘 표현하지 못하시더라고요. 팬들하고 더 잘 소통할 수 있게 도와드리고 싶어요. 골프 아나운서를 시작할 때는 단지 선수와 스코어를 전달하는 일에만 충실했었는데 이제는 프로분들을 도와드리는 또다른 동반자로서 함께 하는 것 같아 의미가 있어요. 강의를 갈 때마다 그리고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마다 정말 뿌듯해요.

Q. CLUBD : 수입이 만만치 않겠는데요?
A. 김 아나운서 : 그 돈들이 다 어디 갔을까요? (웃음) 농담이고요. 재능기부도 자주 하는 편이에요. 발달장애 아이들을 위해서 ‘스페셜 올림픽 코리아’라는 곳에 기부도 하고 있고요. 아이들을 위한 콘서트도 있으면 사회도 재능기부로 하고 있고요. 골프 대회 같은 경우에는 장애 아이들을 위한 콘서트, 난치병 어린이들을 위한 자선기금을 모으기 위한 골프 대회처럼 좋은 취지 행사는 재능기부를 망설이지 않아요.

Q. CLUBD : 사회공헌 활동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군요?
A. 김 아나운서 : 네, 아무리 바빠도 꼭 하려고 해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대회 중의 하나 가 미소 사랑 자선 골프 대회인데요. 코스덕협회가 매년 소외계층 환우 아동 및 청소년 관련 사회복지단체를 후원하는 대회예요. 자기계발을 하고 수익을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세상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은 또 다른 감사니까요.

Q. CLUBD : 골프 실력을 어쩔시나요?
A. 김 아나운서 : 구력을 잔디밭이라고도 하잖아요. 저는 잔디 밟을 눈으로 먹은 것 같아요.



김미영 아나운서

선수들의 좋은 스윙을 많이 보니까 조금 이미지 트레이닝이 되어서인지 도움이 많이 되요. 그리고 쉬는 날은 최대한 라운드를 가거나 꾸준히 연습하려고 해요. 너무 재미있어요. 베스트 스코어는 86개인데요. 싱글까지 도전해보는 게 욕심입니다.

Q. CLUBD : 최근에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 진행도 하셨죠?
A. 김 아나운서 : 네, 작년에 이어 올해도 사회를 맡았어요. 유일무이한 국내 lpga 대회에서 시상식이러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마지막날 시상 진행이었지만, 2-3라운드도 계속 대회장 가서 현장과 더 친해지려고 노력했었어요. 친숙하지 않은 외국 선수와 챔피언 인터뷰를 할 수도 있어서 미리 만나보고 싶었고요. 특히, 올해는 서원힐스에서 대회가 열렸는데요. 대회 준비로 코스를 모두 바꾸었죠. 얼마나 정성스럽게 준비하셨는지 바로 느껴지더라고요. 개인적으로는 ‘개 100’ 한 곳이 서원힐스예요. (웃음) 그 때보다 벅거가 많아져서 더 어려워졌지만 그래도 저에겐 너무 특별해서 더 좋아해요.

Q. CLUBD : 클럽디와도 2019년 속리산 그랜드 오프닝으로 인연을 맺었죠?
A. 김 아나운서 : 네, 벌써 5년이 지났네요. 클럽디 속리산 그랜드오프닝 사회를 시작으로 클럽디 거창, 속리산, 금강, 보은 등 다 가봤죠. 매년 서원-클럽디 레이디스 골프 챔피언십 시상식에도 사회를 보고 있거든요. 올해는 거창에서 했는데 직접 가서봤는데 코스가 정말 예쁘고 좋게 변했더라고요. 그리고 올해 5월에 오픈한 클럽디 청담도 가봤는데요. 이렇게 시크릿하고 특별한 곳이 있구나! 놀랐어요. 행사나 레슨 공간 찾는 분들께 제가 정말 추천을 많이해서 지금은 클럽디 청담 홍보대사나고 오히려 주변에서 물어봐요.

Q. CLUBD : SNS 활동도 요즘 적극적이었던데요. 팔로워가 20만 명이 넘는데요?
A. 김 아나운서 : 계정이 2개여서 합하면 그 정도 숫자가 될거예요. 인스타그램 활동을 하면서 요즘에는 행사에 진행이 아닌 초대해 주시는 분들도 많아졌어요. 셀럽도 아닌데요. 덕분에 골프 인플루언서 친구들이 많이 생겼는데요. 좋은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골프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노력하는 모습들. 선한 영향력을 통해서 많이 배우고 있어요.

Q. CLUBD : 골프로 일을 하지 않았으면 후회할뻔 했겠어요?
A. 김 아나운서 : 특별하죠. 일을 하고 오면, 에너지가 빠진다고보다 오히려 채워져서 오는 느낌이에요. 골프에 그리고 나의 일에 진심을 다하는 그 마음들이 온몸으로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저도 파이널에 선수들을 소개할 때, 온 마음으로 읽어요. 응원과 멋진 샷에 대한 고마운 마음을 담아서요. 최대한 샷할 때 방해가 되지 않는 타이밍에 소개하려고 애쓰는 건 물론이고요. 갤러리에게 소개될 때 그래도 선수에게 조금이라도 힘이 되면 좋겠다. 생각해요. 따뜻하지만 깊이 있는 목소리, 멘트를 만들고 싶어 노력합니다.

Q. CLUBD :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되시나요?
A. 김 아나운서 : 저는 일을 할 때 내가 성장하고 있고,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느낌이 들 때 가장 행복해요. 제가 가장 도움을 줄 수 있는 전문 분야는 스피치이니까요. 이 분야에 도움을 드리고 싶어요. 미디어 인터뷰, 스피치, 프레젠테이션, 세일즈 화법등 지금 하고 있는 강의들 외에도 사람들에게 필요한 소통의 기술이 될까 늘 공부합니다. 클럽디를 좋아하는 팬으로 홍보대사로 활약하고요. (웃음). 개인적으로 클럽디를 몇 년 전보다 제가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점이 오늘 인터뷰하면서 느껴지네요.

글 | CLUBD(클럽디) MAGAZINE

세계 첫 메탄올 추진 컨테이너 운반선에 담긴 의미...다시 찾아오는 조선업의 봄



글 | 권순우 삼프로TV 취재팀장

지난 7월 울산에서 출발한 메탄올 추진 컨테이너선이 총 2만 1500km의 항해 끝에 두달 만에 덴마크 코펜하겐항에 도착했다. 현대미포조선이 건조한 이 선박은 2100TEU급 컨테이너 운반선으로 세계 최초로 만들어졌다. 배를 주문한 곳은 세계 1위 해운사 AP몰러-머스크다. AP몰러-머스크는 2021년 HD현대에 해당 선박을 세계 최초로 발주했고, 이후 1만TEU급 12척, 1만 7천TEU급 6척을 연이어 발주했다. 2년여의 건조 기간을 거쳐 첫 번째 선박이 만들어졌고, 다른 선박들도 건조가 되는 대로 인도가 이뤄질 예정이다.

해당 선박에 이름을 지어주는 명명식은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이뤄졌다. 해당 선박의 명명식은 선주사인 머스크의 요청으로 덴마크에서 개최가 됐다. 머스크가 '해운의 새 시대를 연대'는 의미를 담아 본사가 있는 곳에서 개최하기를 원했기 때문이다. 해당 선박이 이름도 없이 2만여km를 항해하게 된 이유다. 덴마크에 도착한 세계 최초의 메탄올 추진 컨테이너선에게 붙여진 이름은 '로라 머스크(Laura Maersk)'다. 머스크의 창업자 피터 머스크 몰러가 처음으로 구입했던 증기선 '로라호'에서 따온 이름이다.

명명식에는 로버트 머스크 우글라 머스크그룹 이사회 의장과 정기선 HD현대 사장뿐 아니라 우르줄라 폰테어라이엔 EU집행위원장이 참석해 로라 머스크의 시작을 축하했다. 도대체 이 선박이 뭐길래 이렇게 요란하게 명명식을 가진 것일까? 로라 머스크의 선수와 선체에는 '제로(탄소중립)로 가는 길(All the Way to Zero)'이라는 슬로건이 새겨졌다. 그렇다. 이 선박은 인류가 최초로 만든 탄소 배출이 없는 친환경 선박이다.

선박은 크고 무겁고 비싸고 오래 쓴다. 선박의 단위인 TEU(twenty-foot equivalent unit)는 20피트 길이의 컨테이너를 부르는 단위다. 1만 7천 TEU급 컨테이너 운반선이라고 하면 20피트 컨테이너 1만 7천개를 운반할 수 있는 선박을 의미한다. 이런 규모 선박의 길이는 400미터에 육박한다. 63빌딩 높이가 250미터이니, 선박을 세워 놓으면 63빌딩 보다 훨씬 높다. 선박은 운송 수단이라기보다 건물이라고 생각하는 게 이해하기가 쉽다. 그 거대한 빌딩이 움직여야 하니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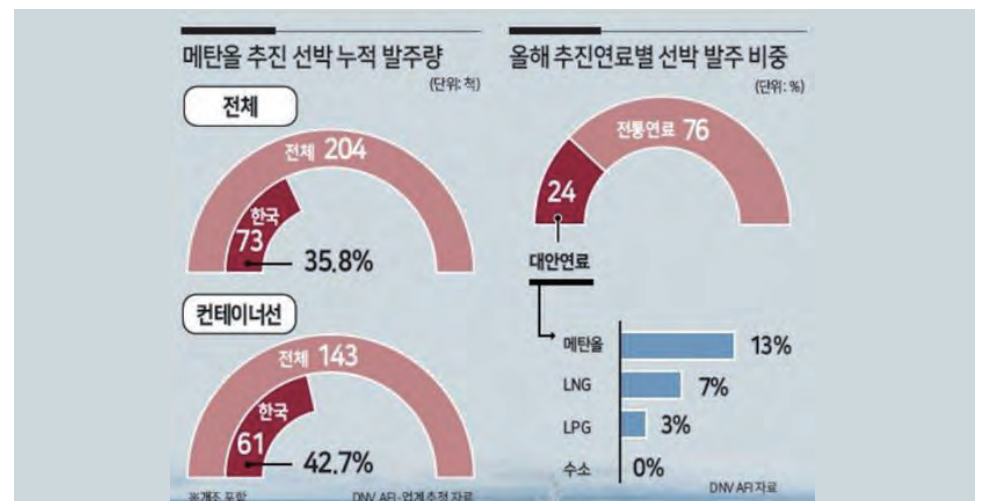
해운 산업은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3.3%를 차지한다. 전 세계 화학 산업과 비슷한 수준이고, 세계 5대 탄소배출국인 중국, 미국, 인도 등을 제외한 모든 국가에서 배출하는 탄소 부차량보다 많으니 적지 않은 수준이다.

선박은 자동차와 달리 내연기관을 대체할 수단이 마땅치 않다. 배터리는 에너지 밀도가 높지 않다. 같은 거리를 갈 때 화석연료에 비해 훨씬 더 많이 싣고 가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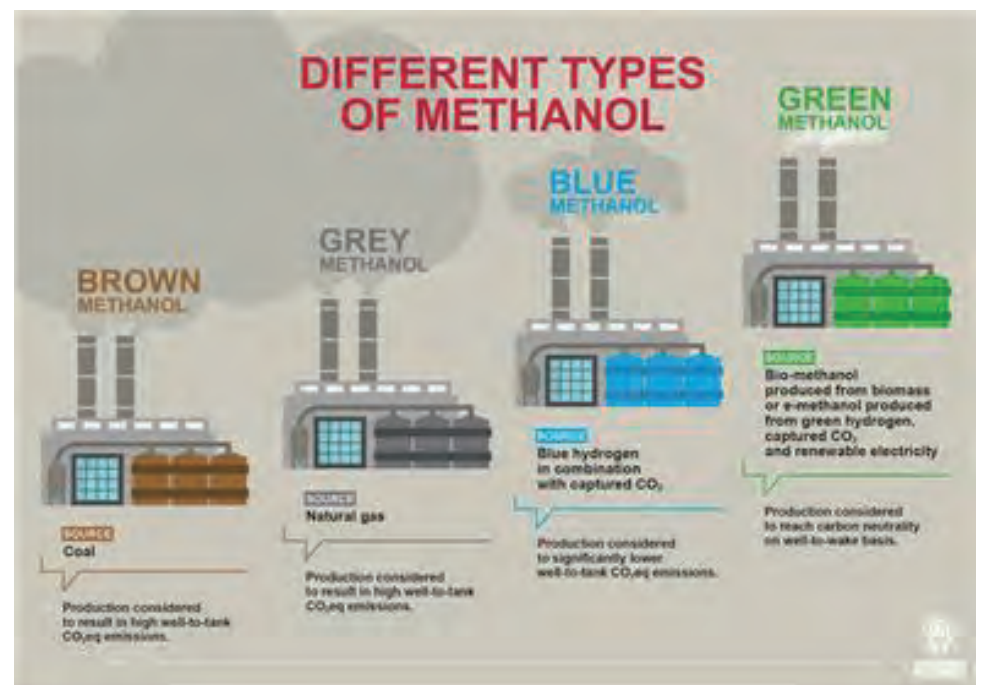


단거리를 운항하는 유람선은 몰라도 장기 운송을 하는 해상운송 선박에 적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수소는 배터리에 비해 에너지 밀도가 높아서 대안으로 검토되고 있기는 하다. 하지만 수소로 전기를 만드는 수소연료전지는 아직 대형 트럭에서 사용하기에도 성능이 부족하다. 또 수소 자체를 생산하고 저장, 운송하는 인프라가 턱없이 부족하다. 확실한 대안이 없는데 국제해사기구(IMO)는 2050년까지 탄소배출량을 50%(08년 대비) 감축하는 목표를 설정했다. 유럽연합 역시 해운 분야를 배출권 거래제(EU ETS) 대상으로 편입했고 선박 연료 규제를 신설해 압박하고 있다. 에너지 전환은 특정 기업이나 국가가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예를 들어 디젤에 비해 탄소 배출이 적은 LNG 추진선을 운영한다고 하자. 해운사가 LNG 추진선을 돈 주고 산다고 해서 운영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LNG 추진선이 있다 한들 LNG를 충전할 충전소(선박 분야에서는 벙커링이라고 부름)가 없으면 운영이 불가능하다. LNG 충전소는 누가 만들 것인가. 충전소 입장에서는 LNG 추진선이 많지도 않은데 충전소를 먼저 만들면 손해다. LNG 추진선 입장에서는 충전소가 없으면 운영할 수가 없다. 배 한척이 수천억원이고, 충전소 하나가 수천억원이다. 손해를 감수하고 먼저 뛰어든 시장 참여자는 없다.



그런 와중에 1위 해운사인 머스크가 메탄올을 친환경 선박으로 선택했다. 메탄올은 상온에서 액체이기 때문에 -162도에서 액화가 되는 LNG, -253도에서 액화가 되는 수소에 비해 운송과 저장이 용이하다. 다만 메탄올(CH₃OH) 자체가 탄소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연소를 하면 탄소가 배출된다. 메탄올이 친환경 연료가 되려면 제조 과정이 친환경이어야 한다. 메탄올은 주로 석탄을 화합해 만들며 이를 브라운 메탄올이라고 부른다. 탄소 배출이 없는 메탄올은 그린 메탄올이라고 한다. 물의 전기분해 해서 만든 수소와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와 결합을 시켜 메탄올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만들어진 메탄올을 연소시키면 탄소가 배출되기는 하지만, 이미 공기중에 배출돼 있는 이산화탄소를 포집해 사용하기 때문에 순배출은 제로가 된다. 같은 메탄올이라고 하더라도 어떻게 생산했느냐에 따라 친환경 에너지가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그린 메탄올을 만들 것인지도 중요하다. 재생에너지로 만드는 그린 메탄올은 석탄으로 만드는 브라운 메탄올에 비해 비싸다. 같은 메탄올을 굳이 비싼 값에 사줄 사람은 없다. 머스크는 한편에서는 메탄올 추진선박을 주문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그린 메탄올을 생산해줄 중요 6개 기업과 동맹을 구축했다. CIMC, 유러피안 에너지, 오스테드 등 6개 기업은 2025년 말까지 연간 최소 73만톤을 생산하고 생산된 그린 메탄올은 머스크가 사주기로 했다. 메탄올 추진선을 운영할 기본적인 구도는 만들어진 셈이다.

머스크가 친환경 메탄올 선박 프로젝트를 깃발을 올린 뒤 3위 해운사인 CMA CGM도 중국과 한국 조선사에 메탄올 추진 선박을 주문하며 뒤를 이었다. 최근 중국 상하이 와이가오차오조선에 8척을, 한국 현대삼호중공업에도 1만 3천TEU급 메탄올 추진 컨테이너 12척을 주문했다. 7위 해운사인 대만 에버그린은 지난 7월 24척의 메탄올 추진 컨테이너선을 발주했고 이중 16척은 한국 삼성중공업이 수주했다.

기후 위기 대응, 탈탄소가 시대적 흐름이라는 걸 모두 다 알고 있지만 어떤 연료가 대세가 될지 선주사들은 눈치만 보고 있었다. 이제 술술 LNG, 메탄올이 기준이 되는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더 많은 선사들이 LNG, 메탄올 선박을 주문하면 할수록 그 기준은 더욱 공고해진다. 또 친환경 선박이 대세가 되면 더 많은 선사들이 자신 있게 주문을 할 수 있게 된다. 10여년간의 불황을 거쳐 국내 조선사들의 도크가 차고 있다. 한국 조선 3사는 모두 4년에 육박하는 일감을 이미 확보했다. 친환경이라는 화두가 해운 조선업계에 새로운 먹거리로 개화되면서 시장을 선점이 중요해 보인다.



이윤서-안성현, '유망주 발굴 요람' 클럽디 아마추어 에코 챔피언십 초대 우승

국내 밸류업 플랫폼 전문 회사인 주식회사 이도(YIDO)가 운영하는 레저 브랜드 클럽디(CLUBD)는 지난 6월 6일부터 9일까지 '대한민국 골프의 전설이 시작되는 곳 (Where the Legend Begins)'이라는 슬로건으로 제1회 클럽디 아마추어 에코 챔피언십을 개최했다. 대한골프협회(KGA)가 주관하고 국가대표 상비군과 국내를 대표하는 아마추어 180여 명이 참가해 4라운드로 진행된 이번 대회 결과 여자부는 이윤서(서문여고1), 남자부는 안성현(비봉중2)이 우승을 차지했다. 주니어 육성 및 골프 저변 확대를 위해 마련한 이번 대회는 3라운드 및 파이널 라운드를 워킹플레이로 차별화한 운영 방식으로 진행됐다.

글 | CLUBD(클럽디) MAGAZINE

밸류업 플랫폼 이도, '5성급' 대구 메리어트 인수... 레저 사업 확장

국내 유일의 밸류업 플랫폼 전문 회사인 주식회사 이도는 골프장과 프리미엄 스파&위터파크에 이어 5성급 호텔 인수 및 운영을 통해 본격적인 레저사업 확장에 나선다. 주식회사 이도는 대구 지역 최초 인터내셔널 5성 호텔인 대구 메리어트 호텔에 대한 인수를 지난 6월 마무리했다. 지난 2021년 문을 연 대구 메리어트 호텔은 동대구 도심 개발의 핵심 권에 있는 곳으로 지역을 대표하는 5성급 프리미엄 호텔이다. 동대구역 복합환승센터, 대구 국제 공항 등 도심 교통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어 쇼핑센터와 관광 명소 등을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다.

글 | CLUBD(클럽디) MAGAZINE



KLPGA 선수와 함께 '골프 꿈나무' 후원 디딤돌 재단에 1억 원 기부

친환경 기업이자 국내 유일의 밸류업(Value-UP) 전문 플랫폼 회사인 주식회사 이도(대표이사 최정훈)가 운영 중인 골프 클럽 브랜드 클럽디(CLUBD)는 KLPGA 투어 프로들과 지난 10월 막을 내릴 대보하우스디 오픈에서 기부 캠페인을 펼쳤다.

KLPGA 대표 선수인 박결 프로는 애장품인 웨지 2개와 꿈나무를 위한 재능 기부를 했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기부에 참여한 조아연 프로도 2022년 2승을 거두며 사용한 드라이버와 함께 꿈나무를 위한 재능 기부에 참여했다.

또한, 클럽디 청담의 엠베서더이자 국내외 통산 15승 최나연 프로는 2012년 US오픈 우승했던 해에 사용했던 드라이버 및 꿈나무를 위한 재능 기부를 했다. 올 시즌 3승을 거두고 있는 톰랭커 박지영 프로는 애장품인 퍼터, 통산 5승의 임희정 프로는 애장품 하이브리드 클럽, 올해 데뷔 첫승을 거둔 황유민 프로는 국가대표 시절 사용한 애장품인 캐디백 등 추석 명절을 맞아 선수들의 다양한 릴레이 기부가 이어졌다.

아울러 아쿠쉬네트코리아(최인용 대표이사)도 스카티 카메론 씨클티 퍼터와 스카티 카메론 퍼터 피팅 이용권, 스카티 카메론 한국 오픈 씨클티 퍼터 커버 및 스카티 카메론 친필 사인 등을 기부했다.

이렇게 마련된 약 1억 원 이상은 전액 골프 꿈나무 후원을 위한 비영리재단 디딤돌재단에 기부됐다. 글 | CLUBD(클럽디) MAGAZINE

(주)이도(YIDO), 포천~화도 고속도로 및 수동휴게소 운영 신규 계약..."민자도로 업계 1위 확대"

주식회사 이도(YIDO, 대표이사 최정훈)가 도권 제2순환고속도로의 한 축으로 포천~화도 고속도로 통합운영관리 계약을 체결하며 업계 1위로서 입지를 더욱 강화한다. 아울러 해당 구간에 들어서는 수동휴게소 2곳에 대한 운영도 담당한다. 글 | CLUBD(클럽디) MAGAZINE

총연장 : 28.7km, 왕복 4차로
 용역수행 : 도로 통합운영관리, 수동휴게소 2곳 운영
 도로설명 :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의 한 축으로 개통 시
 포천에서 화도까지 약 40분 이상 걸리던 이동 시간이 20분 내로 단축될 전망



